2008 건설의날 ‘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 종 수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 건설 역군으로서의 긍지 느껴…건설업 발전에 매진할 터 ”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큰 상을받게되어무한한영광으로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건설역군으로서의보람과긍지를느끼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정적으로뛰겠습니다.”

이종수현대건설사장이지난달6월18일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수훈했다.

이종수 사장은 1978년 현대건설에입사하여 국내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 사업 및 대규모국책사업등에앞장서왔다. 또한, 리비아 ·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근무와 재정 · 기획 ·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건설을 통한 국위 선양과 외화가득률제고등국가발전에일익을담당함으로써이번금탑산업훈장을수상케됐다.

이종수 사장은 특히지난 2006년 3월제17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취임첫해에채권단관리에서벗어나자율경영체계로의전환과신용등급상승을 주도했을뿐만아니라사상 최대규모의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현대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끝막이공사도 완료하는 한편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고부가가치 플랜트 영역인 GTL(Gas-to-Liquid : 천연가스액화정제시설) 공사를수주하는등국내건설산업의질적도약을주도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9월에는 현대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 힐스테이트 를 직접 선보이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주거명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갔다. 특히, 힐스테이트 런칭 이후 그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독특한광고 · 마케팅 전략으로고객들과의감성적공감대를확대해나감으로써짧은기간에대한민국대표브랜드로서자리매김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도 국내 최초로 태안에 기업도시를 착공하고, 쿠웨이트 · 리비아 · 카타르 등지에서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건설업체들의 ‘ 제2의 중동 특수 를 주도하며 해외건설 선도자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국내건설업체로는최초로해외수주 600억달러를달성하기도했다.

근래의 유가 상승으로 초대형 발주가 이어지고있는주요원유생산국으로부터뛰어난기술력과경쟁력을인정받아미국, 프랑스등세계유수의건설업체들과경쟁함으로써한국건설의위상을높이고있는이 사장은 올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65억 달러로잡는등앞으로해외건설에더욱주력할계획으로있다.

이 사장은 아울러 열린 경영을 기치로 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수행에도적극노력하고 있으며, 문화 증진을 위해 1문화재 1지킴이(창덕궁지킴이) 활동등을적극펼쳐나가고있다. 복지분야에서도300여개에달하는현장과연결한‘ 1현장1이웃 ’봉사 활동, ‘ 노인복지센터 ’ 지원 등 전국에 걸친전사적차원의‘ 나눔의정 ’활동을전개함으로써역동적인사회봉사 기업문화를만들어왔다.

이 사장은 끝으로“ 이 상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 발전에 앞장서온 모든 건설인들의 영예이며,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준 현대건설 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설업 위상 제고에 매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1973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사장은 현재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한국건설경제협의회 부회장, 한국주택협회 이사,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운영위원 등 건설관련협회및학회의요직을잇달아수행하며국내건설산업발전을위해노력하고 있다.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